

'기록의 나라 새길을 열다'

무주군, 9월 3일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행렬 재연 행사 진행

조선왕조 맥으로 상징됐던 1634년 조선왕조 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행렬 재연행사가 제26회 반딧불축제 때 무주군 일원에서 엄숙히 펼쳐진다.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에 따르면 제26회 반딧불축제 폐막 전날인 9월 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기록의 나라 새길을 열다' 주제로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행렬을 재연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날 이안행렬 행사는 묘향산에서 이안된 실록을 봉안하는 과정을 1600년도의 당시 평민들의 복장과 당시 행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역사성과 현실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이번 행렬의 특징은 재연시 평민복장을 한 당시 백성들의 환영 모습을 볼 수 있다. 군은 지난 19일까지 평민으로 참여할 군민 240명도 모집했다.

이들 무주군민으로 구성된 240여명의 조선시대 평민들은 등나무운동장 사거리에서 무주현감 봉안사를 맞고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행렬은 북전주세무서출장소 무주민원실을 시작으로 등나무운동장 사거리까지 행렬을 하며, 무주 현감 행렬은 무주군청을 출발해서 U대회 기념교를 거쳐 등나무운동장 사거리에서 봉안사를 맞고 다시 무주군청으로 행렬해 무주관아 보관식 행사를 갖는다.

이후 무주군청~타미널사거리~최북미술관을 경유하는 적상산사고 봉안행렬을 하고 한풍루에 도착해 적상산사고 봉안식 순으로 봉안행렬 재연 행사를 마무리한다.

봉안식이 진행될 한풍루 마당에서는 창작 국악그룹 이상과 함께하는 국악콘서트를 비롯해 줄판대 김대균 명인의 재미있는 줄타기 여행 프로그램인 관록 전통줄타기 공연으로 관람객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사고 봉안행렬 재연행사 모습

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한다.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행렬 및 봉안식 재연행사는 이안과 적상산사고에 실록을 봉안했던 모습을 재연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 재연과 무주 관아에 보관하는 보관식 사고에 실록을 안치하는 봉안식 등이 역사성이 반영된 사실감 있게 재연돼 무주군민들에게 진한 자긍심을 심어줄 것으로 보인다.

맹갑상 무주문화원장은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은 자문회의를 통해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행렬 행사를 철저한 고증에 따라 항정자(항로를 실은 가마), 채여(실록 책을 실은 가

마) 등과 426명(백성 240명)의 출연진이 참여한 가운데 최대한 현실감 있고 사실감 있게 재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일 한풍루앞 부스에서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주현감과 봉안사의 의상을 입은 관람객들이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한편, 적상산사고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보 조선왕조실록과 왕실 족보인 선원록 등 5천541권이 약 300여 년간 보관돼 있던 곳이다. 현재 복원된 적상산사고(1995년 전라북도 기념물)에는 조선왕조실록과 선원록 복제본 42권이 전시돼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화가 조현동 작가 '시간이 들려주는 이야기'

한국전통문화전당 여덟 번째 기획전시 9월 4일까지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여덟 번째 기획전으로 한국화가 조현동 작가의 '시간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조현동 작가의 60회 개인전으로 '시간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주제로 그동안 발표했던 △자연-순환 이야기 △공간-채집 △자연-경계 △연작의 작품들을 통해 전통과 현대, 동·서양의 조화(調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작가에 따르면 자연의 순환과 경계에 대한 메시지를 꽃, 새, 나비, 물고기 등 자연의 물상들을 소재로, 천에 아크릴과수, 은박, 자개 등의 재료와 현대적 조형성을 담아 표현했다.

김선태 원장은 "최근 현대적 감각을 적용한 전통의 재해석이 대두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調和)를 보여드리고자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며 "팬데믹과 기후변화의 위기를 품고 겪고 있는 요즘, 전통적 색채와 채색기법으로 평화로움 더하는 조 작가의 작품을 통해 지친 심신을 위로받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 출신의 조 작가는 원광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 박사를 취득했다. 서울·전주·일본·미국·독일 등 국내외 개인전 50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단체전에서 활동하며 전라미술상,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심사위원선정 특별예술가상



조현동 작가 자연-경계.

등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원목회, 원미회, 우진청년작가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마을을 잇는 찾아가는 작은 공연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생활문화동호회, 삼삼오오 문화마실 진행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센터장 문윤걸)에서는 2021년도에 이어 문화적 공백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작은 공연 <삼삼오오 문화마실 시즌2>를 진행한다.

<삼삼오오 문화마실>은 2021년 '완주문화도시 주간'에서 주민들의 제안으로 기획된 사업이다. 농한기에는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이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농한기 시즌에 맞춰 찾아가는 작은 공연을 진행했다.

2022년 <삼삼오오 문화마실 시즌2>에서는 동호회 및 마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완주생활문화동호회와 함께 찾아가는 작은 공연을 진행한다. 올해 공연은 원주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마을 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간 교류가 미흡하고 문화를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 필요성에 대한 주민 제안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8월에는 구이와 봉동, 소양과 삼례의 동호회가 서로 교류할 예정이며 공연 일정은 23일부터 매주 목, 금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며 첫 공연은 구이면 두방마을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을 통해 각 권역에서 활동하는 동호회가 무대마다 함께 출연하며 마을주민들 간 화합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문윤걸 센터장은 "2021년도부터 진행된 문화공백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작은 공연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각 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 간 서로 교류하고 문화를 통해 소통과 만남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및 공연 관련 내용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063-291-559)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원주=이중복 기자

김제 정신 살아있는 12권 '아리랑 함께 읽기' 참여자 모집

김제시립도서관에서는 김제를 무대로 한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12권) 함께 읽기'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자를 9월 6일까지 선착순으로 25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도서관 방문·전화 접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소설 '아리랑' 함께 읽기 인문학 프로그램은 9월 13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운영할 예정이다.

조석중(배움아카데미 대표) 전문 강사의 독서 가이드 강연을 접목한 비경쟁 독서 토론과 소설의 배경이 되는 장소(김제 아리랑문화관, 아리랑 문화마을, 새창이다리, 군산내항 일대) 탐방 등 15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김제 정신이 살아있는 12권의 '아리랑'을 석달여 기간 동안 함께 모여 책 읽기와 토론, 역

사적인 현장 탐방을 통해 김제의 역사를 바로 알고 김제시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운영시간을 저녁 시간으로 편성하여 일반인 및 직장인 누구에게나 많은 호응과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 맹경 외에잇' (김제 만경평야의 옛말)이 품은 소설 '아리랑'을 오래전에 읽었던 사람이나 12권을 끝까지 읽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김제시민으로서의 땅과 곡식의 울림을 느껴볼 기회가 되리라 본다.

소연수 시립도서관장은 "앞으로도 책과 사람, 현장이 만나는 독서 문화의 장을 열어 생활 속 인문학 가치확산과 지역 내 인문 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시와 서예 그리고 힐링' 오늘 개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23일 전주 덕진공원에 위치한 연화루에서 서예·인문 콘서트 '시와 서예 그리고 힐링'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직위가 처음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서예의 인문학적 전통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소통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시와 서예 그리고 힐링'을 주제로 한 행사는 김사인 시인의 강연과 시 낭송, 김병기 명예교수의 강연과 서예 시연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김사인 시인은 '향수'를 주제로 시 6편을 골

라 시의 의미를 되새기며 청중과 호흡을 함께 한다.

이어 김병기 교수는 을지문덕 장군의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와 매천 황현 선생의 '절명시', 그리고 항일시기 전북의 유학자였던 유재 송기면 선생의 시 '병신년 새 아침에' 등을 풀이하고 각 시에 맞는 서체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 세 구절을 가로 90cm·세로 1000cm의 대형 종이에 쓰는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이 밖에 이용선 명창과 장재환 고수가 함께 하는 판소리 공연도 준비돼 있다. /뉴시스

